

# 새정치 후보 출향인사나 고향지킴이나

## 광주·전남 재보선 4곳 대결구도...경쟁 치열

### ■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 재·보선 공천 경쟁

선거구	출향인사	토박이인사
광산	기동민, 김명진, 김철근	이근우, 이남재
나주화순	송영오, 홍기훈	신정훈, 정영팔
담양함평영광장성	김효석	김연관, 이개호, 이석형
순천곡성	서갑경, 장성배, 정표수, 조순용	고재경, 구희승, 김동철, 노관규

광주·전남지역 재보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경쟁이 서울 등지에서 활동해온 출향인사와 지방에 살면서 정치적 기반을 쌓아온 후보의 대결구도로 흐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는 등 서울에서 정치를 해온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지역을 바꿔 광주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명진 전 원내대표 특보는 중앙당 활동 때문에,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치평론 활동 때문에 서울에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 광주 출마를 결심했다. 김 전 특보는 지난 총선 때 광주 남구, 김 소장은 고흥·보성에서

각각 당내 경선에 나섰다. 이에 맞서 광주에서 쪽 생활하며 고향을 지켜온 이남재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과 이근우 변호사가 나섰다. 이 전 부실장은 순חק구 상임고문의 최측근 인사로 10여 년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며 정치적 세대교체를 꿈꿔왔다. 이 변호사는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해왔으며 안철수 대표 측 새정치연합에 합류하며 정치에 뛰어 들었다. 출마 저울질 중인 전정배 전 의원은 지난해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정치적 재기를 노려왔다.

순천·곡성에서는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의 요

청으로 서울 용산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다시 순천 출마를 노리고 있다. 서갑경 전 의원도 지난 2011년 1월 국회의원직 박탈 후 잠시 순천을 떠났다가 이번에 고향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으며, 조종사 출신의 정표수 전 공군소장도 이번에 금의환향을 노린다. 장성배 전국청년경제인협회 사무총장은 사업 때문에 수도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지방행을 노리고 있다.

이들에 맞서 검사 출신인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나섰다. 그는 10년 이상 순천을 떠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해왔다. 판사 출신인 구희승 변호사도 이에 가세했다. 그 역시 10여년 동안 순천을 떠나지 않았다. 신진 후보인 고재경 전 보좌관은 지난 총선 이후 국회를 떠나 고향에서 생활하며 여의도 입성을 노려왔다. 김동철 전남도 교육의원도 고향 지킴이 후보다.

나주·화순 지역구에서는 송영오 상임고문과 홍기훈 전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내려갈 기세고 지역에서는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정영팔 전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이 나선 상태다. 송 고문은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는 등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해왔으며 홍 전 의원은 그동안 선거 때 광주·전남지역에 몇 차례 공천신청을 했으나 주요 활동 근거지는 서울이었다. 반면, 신 전 시장은 시장직을 내놓은 이후에도 나주를 떠나지 않았으며 화순이 고향인 정 전 협회장은 20여년 동안 광주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호남정치의 세대교체를 그려왔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지난 총선 때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김효석 전 의원이 유턴을 노리고 있다. 반면, 이개호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지난 총선 경선 패배 이후에도 지역구를 떠나지 않고 재기를 노려오다가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 김연관 전 도의원도 영광에서 쪽 정치를 해왔으며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군수를 그만둔 후 서울과 전남도를 오가며 정치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당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총선은 출향 인사들의 잔치가 돼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고향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신진인들이 늘고 있어 이번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중진 의원은 외통위를 좋아해

## 다선 대거 몰려...안철수 복지위·박영선 기재위 배치

여야 의원들의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여야는 22일까지 지원자가 대거 몰린 인기 상임위와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임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여지만 남겨뒀을 뿐 대부분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권 주자인 서청원, 김무성 의원은 본인들의 희망대로 안행위와 농해수위에 각각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제 의원은 농해수위 배치가 유력하다. 이원구 원내대표는 국방위와 안행위 중 한 곳을 고려하고 있으며,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를 희망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한 안행위에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선의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5선의 이재오 의원, 4선의 원우철 정병국 의원은

외통위 배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외통위는 새정치연합에서 김한길(4선) 공동대표와 이해찬(6선) 의원 등도 배치되는 등 다선 의원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상반기에 몸담았던 복지위에 그대로 머무를 예정이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박해자 최고위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사실상 배정됐지만 나머지 최고위원은 아직 유동적이다.

기자 위에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현미 원내정책수석,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병계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가 대거 배치됐다. 문재인 의원은 국방위원회, 박지원 의원과 한명숙 의원은 법사위와 정무위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경찰, 국정원 댓글 수사 개입 폭로 권은희 사직서

## 재·보선 출마 관측도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사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일선 상의 사유로 관악경찰서 경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6일간의 연가를 냈다. 권 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에 증인 출석한 뒤부터 사직을 고민하다가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오늘 사직서를 냈다”



고 말했다. 지난해 연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한 학기 만에 휴학한 권 과장은 다음 학기 복학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집에서 쉬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의 사직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서는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돌고 있다. 공무원이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려면 다음달 1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권 과장은 이런 추측에 대해 일침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 7·30 재보선 브리핑

## 노관규, 순천·곡성 출마...“새정치 적극 잇겠다”

노 전 시장은 지난 20일 “오는 7월30일 시행되는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노 전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적통을 잇는 민주세력이고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부분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공천 후보에 대한 심사기준과 경선 일정 확

정되는 다음주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인 노관규 전 시장은 6년간 순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유치했으며, 2012년 4월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됐으나 김선동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패한 바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여야, 분리 국감 등 합의 6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

##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

여야가 분리 국감 등 쟁점에 잠정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원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3일 주례회동에서 국정감사 2회 분리 실시안과 예결특위는 월 2회, 정보위는 매 회기마다 개최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동에서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1차 국정감사 실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국정감사는 9월 하순부터 10월경에 검토하는 중이다.

여야는 이로써 24~25일 분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6월 국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인사청문화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등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은 아직도 있다.

우선 문 후보자를 비롯해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문 후보자 외에도 김

명수 신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에서 ‘차떼기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2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싸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했던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를 26~27일 받기로 합의했으나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로 기관보고 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새정치연합 측이 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에 기관 보고를 받자며 새누리당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세월호 후속 입법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문창극, 언제 나오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틀째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22일 오후 취재진이 문 후보자의 자택이 소재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리산 노블랜드

산지입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콘도/팬션/별장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장소!  
광주에서 1시간 10분 거리!  
화개장터, 쌍계사, 화엄사, 노고단 근처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062)418-9000 H.010-4451-6686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